



◇8월30일 진각종과 대각종을 시작으로 북한산 살리기에 범종단적으로 참여했다.

북한산·천성산 살리기 전종단이 나섰다

북한산 관통도로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정치적 보호' 발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과 천성산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조계종 교구 분발사 주지 스님들의 릴레이 단식 정진에 이어 북한산 문제를 범종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8월 30일부터 진각종과 대각종을 시작으로 총지종·여래종(31일), 태고종·미타종(9월 1일), 천태종·열반종(2일) 등 종단협 산하 주요 종단 스님들이 8일까지 참여정부의 북한산 관통노선 백지화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관통노선 백지화 촉구 릴레이 단식 회룡사스님들 “북한산과 운명함께”

단식정진에 동참했다. 이에 앞서 8월 29일 경북 문경·예천 지역 인근 15개 사찰 주지 스님들은 북한산 관통도로와 경부고속철도 급정산 천성산 구간을 조속히 강행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낸 신영국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 문경·예천 지역구를 향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천 지지사 주지 자광 스님, 구미 도리사 주지 범등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등은 “위원들의 공론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건교위원장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낸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정부 회룡사 스님들도 북한산이 관통된다면 함께 죽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회주 혜주 스님, 주지 성건 스님 등 회룡사 스님 19명은 9월 2일 성명서에서 “총무원의 책임 있는 자와 청와대가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음해로 불교계 내부의 결속을 와해시키려는 음모를 시도하고 있다”며 “북한산에 구멍이 나는 날 우리 대중 모두는 북한산과 함께 죽을 것”을 천명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비전향장기수 30명 대북송환하라” 성명발표

비전향 장기수 송환 3주년 기념 및 2차 송환 촉구대회가 개최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전주교통일후원회, 통일광장 등 종교·사회단체들은 9월 2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열린 대회에서 2차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2차 송환희망자들이 전향 무료 선언을 하고 송환을 요구하고 나선지 이미 3년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남북사이의 화해협력을 촉진하는 본보기로 그리고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정순택, 정순덕 노인 등 비전향 장기수 30명을 조건 없이 송환할 것”을 촉구하고 2차 송환희망 장기수 3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남동우 기자

경부고속철 서울~대구구간 주변 지하수 고갈·소음등 피해 심각

녹색연합, 두차례 조사

천성산, 금정산 구간을 관통하는 장대터널 건설이 야기될 생태파괴, 안정성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 지을스님의 3번째 기도가 21일째를 맞은 9월2일, 한 시민단체가 서울~대구 구간의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가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2일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고속철 서울~대구 구간의 환경훼손과 주민피해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수고갈, 수해, 토사유출, 소음 및 진동, 농작물피해 등 주민피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재철 생태국장은 “조사를 통해 밝혀진 지역 중 가장 극심한 환경파괴가 발생한 곳은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일대”라며 “지하수 고갈을 비롯해 소음과 진동, 가축 집단 폐사, 양식장 물고기 죽음, 주택균열 등의 환경재앙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하수 고갈이 나타난 지역만도 경부고속철도의 대표적 터널 구간인 비룡터널이 지나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일대와 광명역사가 들어설 광명시 일대 등 소하도 인근 지역 등 다수로 나타났다. 지하수 고갈로 식수 해결이 어려워 지하수 고갈로 식수 공급했지만 이

저도 식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정수기를 설치해 왔다. 그러나 잦은 고장과 수리비용 부담 등으로 주민들은 식수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연합 서재철 생태국장은 “경부고속철 공사가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거의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로 미뤄볼 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부산 구간 천성산, 금정산 장대터널공사로 인한 고속철도 고갈 및 지하수 누수, 지중 침하 등 심각한 환경문제와 안전의 문제가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지장사 수지포교원 앞에 내동맹이 처진 현판과 초파일 연등.

지장사 수지포교원 훼손피해

동일건물 교회 목사 등 현판·연등 파손

기독교 단체에 의한 훼손사건이 발생했다. 8월 30일 경기도 지장사 수지포교원(주지 의선은 현판과 초파일 연등 108개가 동일 건물에 입주한 예바다 교회의 목사 3명에 의해 파손됐다)고 밝혔다. 수지포교원은 지난 2001년 4월에 건물에 입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경행사와 봉사활동 등에 총력을 기울이며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쳐왔으나, 올해 5월 외국인원으로 계약을 맺은 옆 사무실 입주자가 임의대로

업종을 바꾼 교회를 옆에서부터 크고 작은 불상사가 끊이지 않았다. 화장실에 붙여놓은 글씨가 때어지고 낙서되는 것은 물론, 포교당 바로 위 옥상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지 스님이 먹살을 잡으며 협박을 당하는 등의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났기 때문. 이에 수지포교원은 교회 측 실무자와 대화를 시도, 공동의 규정을 정하는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교회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김은경 기자

범종단 환경기구 설립 주요종단대표 간담회

범종단 환경기구 설립 지원 및 동참에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이 범종단적으로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9월 1일 하림사에서 열린 범종단 환경기구 설립 지원 주요종단 2차 간담회에서 △범종단 환경기구 설립 지원 및 동참 △추진위원회 구성(추진위원회는 상임이사 종단에서 2명씩 추천 △8월 종단협 상임이사회에서 추진위 구성 보고 및 위원장 선임 △추진위원회 실무 진행을 위해 주요종단에서 실무위원 1인씩 추천 등을 결의했다. 남동우 기자

청년학생 200명 22일 방북

유적답사·경제교류 ‘첫인연 맺기’

남측청년 200명이 9월22일 방북하게 된다.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산하 청년학생위원회(단장 정상욱)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장 김인호)이 공동주최, 9월 1일부터 3일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청년학생대표자대회’가 방북단과 청소년교류 협의라는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됐다. 청학위 단장으로 방북한 정상욱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실무협의

결과 오는 22일부터 4박 5일간 남측 청년 200명이 유적답사단과 경제교류단으로 북측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와 청년학생 교류 협력 방안 및 남북한공동사업에 대한 논의의 틀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회장은 “남북 중·고등학생들의 역사탐방 및 문화체험에 대한 구두협의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방북의 중요 의제였던 10월의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남북해의 청년학생 축전’에 대해서는 남북이 다소 의견차이를 보여,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기자

“새장묘문화 선도하자”

한국납골시설협회 발족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해 나갈 납골 시설인들의 모임이 결성됐다. 한국납골시설협회(KACI)는 9월 3일 발대식을 갖고 국토훼손방지를 위한 납골당 건립사업 추진, 화장문화 권장, 납골당 건립과 관련한 법령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동혁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신명,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런 나눔 콜택시 1588-5532

‘논문’과 중강자격 목탁소리 김철우 (취재1부 기자) 조계종 교육원은 2일 열린 제6차 교육원 회의에서 비구니 세등 스님의 승가대학(강원) 중강(부교수) 자격을 보류시켰다. 이날 교육원이 밝힌 보류사유는 지난 2001년 발표한 ‘팔경법의 해체를 위한 폐미니즘 시도’의 논문주제가 율장에 맞지 않는다는 것. 팔경법의 절대적 폐지를 주장한 세등 스님의 연구 전력이 중강 부적격 사유로 적용된 셈이다. 이 논문에서, 세등 스님은 “불교가 성행동적 핵심교리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제도적 형식 속에는 여전히 불교의 대표적 성차별적 규정인 팔경법이 살아있다”며 팔경법 해체를 주장했다. 교육원은 이와 관련, 기자와의 전화에서 세등 스님이 승리기초교육기관인 강원도의 중강으로서의 자격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세등 스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수적인 비구 스님이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자가 학문적 주제로 갖고 연구한 결과물로 중강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다양한 학문적 발전과 불교 내부의 건전한 비판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원의 입장이 틀리는 이에 따라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과연 교육원의 중강 자격 보류가 적절했는가 곰씹어볼 일이다. 종단이 개인의 학문 전력을 시비 삼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누구일까? 저 녀의 주인은... 롯데건설 LOTTE CASTLE.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속에 城을 짓고 삽니다. 아파트를 뛰어 넘어 城이라는 찬사를 받는 고품격 프리미엄 아파트 롯데캐슬에서 당신은 城主가 됩니다. 롯데건설: 2003 한국서비스대상 수상 (한국표준협회) 롯데캐슬: 2003 한국신입의 소비자지자다인선호도 아파트 부문 1위(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3 여성소비자가 뽑은 최고명품대상(우먼타임즈), 2003 여성소비자가 뽑은 베스트브랜드대상(여성신문)